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

방 영 주
(명지대학교)

Bang, Youngjoo. (2007). Perceptions toward native speakers of English as effective language teachers in an EFL class. *Modern English Education*, 8(3), 341-36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elective but representativ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teacher effectivenes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teaching at college and university. A close investig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er effectiveness entails clear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teaching. For this study, 237 students and 50 teachers from several universities participated. The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ith 40 items consists of questions regarding knowledge of English, instruction skill, evaluation, interaction skill, personality of the teacher. The finding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21 items out of 40 between teacher and student group.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had different opinions and attitudes towards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teachers. The findings might help the upgrading of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s for the benefit of prospective teachers and students.

Keywords: [effective foreign language teaching/teaching behaviors/native teachers training/효율적인 외국어교사 교수/교수행위/원어민 교사교육]

1. 서 론

급변하는 국내외 추세 속에서 영어교육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양의 증진이라는 전통적 교육 목표가 타기된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통한 정보처리 능력의 훈련, 영어 상용국의 문화 관습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국제인으로서의 자질 배양 등, 세계화·개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보다 실용적인 목표에 더욱 큰

역점이 주어진 것은 그러한 변화의 중대한 징후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한 영어 학습자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가 이러한 영어교육 목표의 변화를 촉발한 것이라면, 교육목표의 변화는 보다 큰 틀에서의 영어교육의 방향 전반에 변화를 촉구한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 대두한 교육 방법론의 큰 틀은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언어 학습 방법론으로의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 교육 이념을 반영한 학습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전통적인 문법 위주의 학습에서 학습자의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요구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학습으로의 전환으로서 학습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며, 후자는 학습자의 단순한 지적·기술적 향상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학습자의 성향, 특성, 그리고 정의적인(affective) 특성을 학습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학습형태를 모색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화의 핵심은 교사 중심이기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언어 학습 형태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

역설적으로, 학습자 중심 학습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된다. 특히 외국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조명은 국내외 많은 교육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오고 있다(Allwright, 1983; Brown, 2001; Katz, 1996; Michaels, 1985; Wajnryb, 1992; White & Lightbown, 1984; 김광수, 김덕규, 이승복, 1997; 김덕기, 1987; 박상옥, 1980; 배두분, 정길정, 진조영, 1991; 신용진, 1982; 이계순, 1983; 조명원, 1989; 한상호, 2005). Allwright(1983)는 교실수업이 단순히 지식 전수의 고정된 환경이 아니라 구성원들, 즉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종래의 교사 중심의 교육방식으로부터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는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환경과 자료를 공급하고 사전·사후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Brown(2001)도 성공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한 환경과 자료를 공급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지도를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이 결정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영어교사에게 매우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청된다. 단순한 지식 전수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분석 및 교육이론에 근거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교육 의제(agenda) 설계자로서의 역할, 지적·기술적 능력을 포함하는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자로서의 역

할,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업 기술과 적절한 태도 등을 겸비하는 수업 운영자로서의 역할, 학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애정과 관심을 갖춘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 공정을 기할 뿐 아니라 평가의 역류효과(backwash effect)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평가자로서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시도한 몇몇 연구는 교사가 설명자(explainer), 활동개입자(involver), 능력부여자(enabler), 과업수행 촉진자(facilitator), 요구분석가(need analyst), 상담자(counselor), 관리자(process manager), 제조자(manufacturer), 학습자원 제공자(resource provider), 감독 조절자(controller), 의사결정·판단자(decision-maker), 정원사(gardener), 명령자(teller), 설득자(seller), 참여연구자(participant observant), 위임자(delegatee)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own, 2001; Michaels, 1985; Wajnryb, 1992).

효율적인 영어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과는 별도로, 국내의 영어교육 현장 또한 실질적 방안으로서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일례로 1995년 정부는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의 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초청사업인 EPIK(English Program in Korea)를 실시한 바 있고 현 시점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 당국도 학습자 및 학부모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원어민 교사의 채용 확대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각급 교육기관이 달라진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 교육의 방향성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 방안을 추구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공신력 있는 선발 과정과 절차를 통한 우수한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 하에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원어민 교사가 각 학교의 수업에 임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연구와 훈련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영어교사의 체계적 양성이 아니라 즉각적인 인력수급에 치중한 정책적 대응이 과연 새로이 요청되는 영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의 전환에 진정 기여할 수 있을지는 심각한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원어민 교사가 대거 투입된 대학 영어교육 현장의 현실과 효율적 영어교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영어교육의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박경자(1997)는 성공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에 대한 영어교육의 내용,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영어교육의 방법, 그리고 어떤 성품과 학식을 가

지고 있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영어교사의 자세와 태도, 크게 세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한 원론에 입각하되 '국제화'라는 달라진 교육환경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 몇몇 연구에서는 EFL 교실상황의 학습자 관점에서 원어민 교사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의 자질의 중요성은 물론 원어민 교사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하였다(Bang, 1999). 하지만 영어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현실적·학문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학영어 교육에 있어서 원어민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의 문헌연구를 살펴본 결과 최근 20년 동안 영어교육의 원어민 영어교사자질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종래의 교사관련 연구 대부분은 초·중등교육 교사나 학생의 입장에서 내국인 영어교사의 합당한 자질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대학영어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원어민 교사의 자질에 관련된 연구는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을 탐구하고, 특히 학생들은 물론 원어민 교사들 자신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EFL 상황에 적합한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지난 50여 년간, 여러 학문분야에서 효율적인 교사의 자질은 많은 교육가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훌륭한 교사'(good teacher)의 자질의 특성을 기술해 보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Allen, 1987; Biddle & Ellena, 1964; Brophy, 1979; Murray, 1991; Pritchard, Watson, Kelly & Paquin, 1998; Schulz, 2000). 그러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상적인 교사의 자질에 관한 모델이 될 만한 일치점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그것은 교수-학습 상황이 다차원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각각의 교수-학습상황이 교과 영역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 역시 그 교과에 적합한 특성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Murray, 1991). 일반적 정의를 시도한 Pritchard 외 3인(1998)은 효율적인 교수행위의 특징으로서 학생과의 신뢰도, 분명한 교수, 수업에의 열정, 학

생과의 의사소통, 융통성, 수업준비도,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 학습 동기 부여, 학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시험이나 평가의 공정성, 학생들의 자주적 사고 장려, 적절한 과제부여, 진보적인 태도,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 조성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 및 자질과는 달리 언어 교수(language teaching)는 교수의 수단이 학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과는 본질적인 특성상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어교육의 틀이 교과내용 자체보다는 교사나 교육행정가의 사회적, 정의적, 정치적, 심리적, 실질적 가치들에 의해 상당 부분 통제되기 때문이다(Bernhardt & Hammadou, 1987; Jarvis & Taylor, 1990). 특히 외국어 교육가와 연구자들은 외국어 교실은 교육적, 비교육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환경이며 교사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습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Allwright & Bailey, 1983; Cray & Currie 1996).

다수의 ESL 또는 EFL 연구자들(Bell, 2005; Brosh, 1996; Brown & Altkin, 1988; Medgyes, 2001; Numrich, 1996; Penner, 1992; Strevens, 1977; Shulman, 1994; Tikunoff, 1985)은 외국어 교사의 자질에 대해 논의해 왔다. Strevens(1977)는 바람직한 외국어 교사는 해당 외국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그 문법과 어휘에 능통하며, 해당 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녀야 하며, 마지막으로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인내, 인간애,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Tikunoff(1985)에 의하면, 효과적인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관심을 보이고, 설명이나 지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모국어와 목표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으며, 외국어 학습과 다른 학문적인 기술의 향상을 통합하여 지도하고, 학습자들의 의견은 물론 그들의 자국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Brown과 Altkin(1988)은 교수 내용은 물론 교사 및 학습자의 역할 인식에 근거한 교수방법과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서의 외국어 교과의 교수목적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Shulman(1994)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서 가르칠 교과에 관한 지식,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적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들고 있다. Penner(1992)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기술, 교수법, 교수요목 계획 및 구성,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자료 준비 등을 효율적 교사의 자질로 규정한다. 또한 그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지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을 가르친다'

고 주장함으로써 교사의 인성이 모든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Numrich(1996)는 26명의 ESL 교사들을 조사한 결과 편안하고 안전한 교실 분위기 조성,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업내용, 학생들의 발표 유도, 효과적인 교재활용 등을 효율적인 교사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Brosh(1996)는 이스라엘에서 영어, 아랍어, 불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비원어민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언어 구사력, 수업준비도, 교수기술과 방법론, 학습동기 부여,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성취도를 바람직한 자질로 든 반면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교사들이 꼽은 자질들 외에도 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능력, 평등한 대우와 공정한 평가, 수업 외의 학생과의 소통 모색 등을 교사의 중요한 자질로 여겼다. Medgyes(2001)는 유창한 외국어 능력, 언어이론에 대한 이해, 교수방법의 습득, 교재에 관한 이해를 영어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보았다. Bell(2005)은 457명의 외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언어 교수와 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언어 구사력, 학습이론에 대한 지식, 소그룹활동 등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 유도, 학생들과의 의사교환, 외국어 교수방법론 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의 다수 연구자들도 영어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과 교육목표의 효과적 성취를 위한 영어교육의 세 가지 필수 조건(교사, 학생, 교재) 중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해 왔다(김광수, 김덕규, 이승복, 1997; 김덕기, 1987; 김은주, 2002; 김충배, 신명신, 1988; 박상옥, 1980; 배두본, 정길정, 전조영, 1991; 신용진, 1982; 이계순, 1983; 이길영, 2000; 조명원, 1989; 한상호, 2005). 김덕기(1987)와 이계순(1983)은 청취, 구술, 독해, 작문, 문화이해에 걸친 적절한 영어구사 능력, 영어 학습과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효율적인 교수 기술을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 보았다. 조명원(1989)은 그 외에 교육적 교사 능력을 덧붙였으며, 신용진(1982)과 배두본 외 2인(1991)은 우수한 영어교사의 모델로 영어 구사력, 영어교수에 관한 정보, 영어교수관련 이론, 제반 언어학 및 교육학 이론 등에서 뛰어난 교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박상옥(1980), 김충배와 신명신(1988)은 전공지식과 교수 기술 외에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인성을 덧붙이고 있다. 김광수 외 2인(1997)과 한상호(2005)는 유창한 언어 구사능력,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학습심리에 대한 지식, 교수방법과 평가에 관한 지

식, 대화기술, 의사소통 욕구와 기능에 대한 지식 외에도 학습자·학부모· 동료교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학습과정을 위한 성찰적인 교수(reflective teaching), 현장 연구능력, 정보화시대에 따른 교수·학습을 위한 시청각 기자재 활용의 전문성, 국제적 인식에 바탕을 둔 포용적 영어교육관 확립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외에 실험연구로서 이길영(2000)과 김은주(2002)는 초등 또는 중학교 학생 입장에서 바람직한 내국인 영어교사의 교수나 자질에 대해 실험 조사한 결과, 이길영은 학생들은 강의식 교수방법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참여활동에 의한 교수방법을 원했고 교사와의 친밀감이나 체계적이며 성실한 태도의 교사적 자질을 더 원하고 있음을 적시했고, 김은주(2002)는 교사들 자신이 중시하는 자질은 수업에 대한 열정, 언어사용 능력, 교수방법과 기술, 평가 능력 등이었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요소에 더하여 공평한 대우, 학생 의견과 능력에 대한 존중,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을 중요한 교사의 자질로 덧붙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내국인 초·중등 영어교사 양성 방안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자질이나 역할에 대한 연구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중첩될 뿐, 학습자들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별도의 기대에서 비롯되는 특정한 맥락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영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박정숙(1998)은 622명의 중·고등학생과 38명의 원어민 영어교사와 60명의 내국인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교수 스타일과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수와 학습의 스타일이 일치하는 수업이 보다 효율적임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학습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초점은 교수-학습 스타일이지 원어민 교사의 자질과 역할 자체는 아니라는 데 그 한계가 있다. 한편,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박경자(1997)는 영어 구사력과 언어학 및 교육심리학적 지식, 적정 수준의 교수방법과 기술 등을 주요 요소로 꼽는 가운데 특히 교사의 인성과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본격적인 실험 연구가 아니라 국내 원어민 영어교사 일부가 드러내온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제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이 논의가 언급하고 있는 1997. 5. 5일자 <Korea Herald> 기사에서 Harrison은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국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3가지는 영어교수방법에 관련된 것이지만 나머지 7가지는 원어민 교사가 한국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들에 관한 것이다.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적

응이 사회적으로 인지될 경우 그것은, “아무리 교사가 높은 학식과 첨단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교사로서의 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박경자의 주장에 나타나 듯이(1997, p. 11), 교사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에 따라 적응도는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문화적 차이가 원어민 교사에 의해 교실 상황에 불가피하게 도입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그것은 인성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환경의 문제가 되며, 교사와 학습자를 매개하는 모든 요소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사의 인지적·사회적·정의적 측면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원어민 영어교사의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학습자와 또 교사 자신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피실험자

본 연구는 2007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응답한 그룹은 무작위로 선택된 두 그룹이다. 첫 번째 그룹은 주로 국내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교사들 65명에게 이메일을 설문지를 보냈고, 그 중 50명(34명의 남자와 16명의 여자)의 원어민 교사들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그들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은 1년에서 5년 이하가 16명이고, 6년에서 10년은 17명, 11년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자는 17명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필수과목으로 영어회화 수업을 1강좌 이상 수강한 국내 여러 대학의 대학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237명(남학생 113명, 여학생 124명)의 학생들이 작성에 응했으며,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이공대학 학생들로서 그들의 나이는 대다수(214명)의 학생들이 18세에서 25세이고, 23명은 26세에서 30세의 학생들이었다.

3.2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는 pilot-testing을 실시한 결과와 Brown(2001)과 김은

주(2002)의 설문문항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응답자의 인적사항 외에 최종 설문 문항이 40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효율적인 교사 자질에 관한 질문으로 영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영역(7문항), 수업 운영과 관련된 영역(11문항), 학생들의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영역(6문항), 학생과의 상호작용 영역(9문항), 그리고 교사의 인성에 관한 영역(7문항)으로 나뉘었고, 응답자의 각 영역별 선호도를 등급화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설문지는 영어로 번역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요소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용 설문지와 학생용 설문지의 신뢰도는 각각 .91과 .87로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영어교과 담당이 아닌 타 교과 담당교사의 수업시간에 수행되게 함으로써 설문 작성 시 감독교사로부터 학생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효율적인 자질의 5가지 영역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으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어회화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203명(85.7%)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어회화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공용어로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길 위해서'(50.2%), '졸업 후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28.7%), '배워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18.6%),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요에 의하여'(1.7%), '학교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0.8%)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회화 학습에 대한 동기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공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Brown (2001)이 제시한 도구적 동기보다 통합적 동기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EFL 환경에서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영역, 수업과 관련된 영역, 학생들의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영역, 상호작용 기술영역, 교사의 인성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의 선호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1, 표 2, 표 3, 표 4, 그리고 표 5는 교사와 학생집단의 효율적인 원어민 영

어교사의 자질(영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영역, 수업기술 영역, 평가영역, 학생과의 상호작용 영역, 교사의 인성영역)에 대한 5단계의 Likert 측정에 따른 학생과 교사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집단에서 각각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로부터 각 영역의 일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표 1에서 표 5까지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생과 교사집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어서 평균점수를 통하여 볼 때, 교사와 학생집단 모두가 각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주요 관심은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에 관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표 1은 '영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영역'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할 때 7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5개의 항목은 '교사는 영어 발음, 문법, 어휘 등과 같은 영어에 관한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t=5.443, p<.001), '교사는 외국어 학습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t=3.961, p<.001), '교사는 영어의 4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t=-2.291, p<.05), '교사는 영어교육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학회, 워크샵, 세미나 등에 참가함으로써 영어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추구해야 한다'(t=3.491, p<.01), '교사는 보다 효율적인 교수를 위해 교실수업의 현황에 대해 알기 위해 연구(research)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교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t=4.085, p<.001)이다. 또한 두 집단 각각의 평균점수로 효율적인 원어민 교사 자질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은 '교사는 영어 발음, 문법, 어휘 등과 같은 영어에 관한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4.58), '교사는 영어의 4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4.52), '교사는 외국어 학습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4.36) 항목 순서로 응답하여 교사들의 영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유창성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 반면, 교사들 자신은 '교사는 영어의 4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4.76), '교사는 언어와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4.46), '교사는 영어 교과 커리큘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4.16) 항목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들은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교사의

표 1
두 집단 간의 영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영역에 대한 비교

항 목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값
교사는 영어 발음, 문법, 어휘 등과 같은 영어에 관한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 생	4.58	0.688	5.443 ***
	교 사	3.96	0.903	
교사는 외국어 학습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 생	4.36	0.788	3.961***
	교 사	3.86	0.904	
교사는 영어의 4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 생	4.52	0.698	-2.291*
	교 사	4.76	0.657	
교사는 언어와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 생	4.27	0.854	-1.029
	교 사	4.40	0.756	
교사는 영어교육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학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가함으로써 영어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추구해야 한다.	학 생	4.15	0.897	3.491**
	교 사	3.60	1.030	
교사는 영어교과 커리큘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학 생	4.31	0.788	1.149
	교 사	4.16	0.997	
교사는 보다 효율적인 교수를 위해 교실수업의 현황에 대해 알기 위해 연구(research)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교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 생	4.16	0.815	4.085***
	교 사	3.54	1.014	

*** = p<.001; ** = p<.01; * = p<.05

풍부한 설명력과 명확한 전달력을 더 원하고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영어에 대한 유창성 외에 언어와 문화와의 연관성이나 학교 교과과정 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수업기술 영역'에 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영역 에서는 4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교사는 다양 한 외국어 교수법 및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t=-3.109, p<.01), '교사는 학생들 간의 2인조 그룹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t=-6.088, p<.001),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것에 대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준 다'(t=-3.132, p<.01), '교사는 교실 수업을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 2
두 집단 간의 수업기술 영역에 관한 비교

항 목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값
교사는 외국어로서 영어 교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 생	4.27	0.815	-1.159
	교 사	4.42	0.906	
교사는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 및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학 생	4.19	0.800	-3.109*
	교 사	4.58	0.785	
교사는 매시간 수업 지도안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학 생	4.28	0.791	-0.653
	교 사	4.36	0.851	
교사는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학 생	4.50	0.680	1.747
	교 사	4.34	0.557	
교사는 학생들 간의 2인조 그룹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 생	4.05	0.993	-6.088***
	교 사	4.74	0.664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것에 대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준다.	학 생	4.27	0.876	-3.132**
	교 사	4.66	0.772	
교사는 교실 수업을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게임이나 활동)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학 생	4.22	0.857	-2.769**
	교 사	4.52	0.646	
교사는 가르치는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학 생	4.44	0.738	-0.186
	교 사	4.46	0.706	
교사는 다른 시청각적인 첨단 보조자료(컴퓨터 Power Point, 비디오, 오디오, OHP, 실물 화상기 등)를 사용한다.	학 생	3.84	0.905	0.589
	교 사	3.74	1.175	
교사는 수업 내용을 적당한 목소리의 톤과 적당한 속도로 잘 전달해야 한다.	학 생	4.38	0.775	-0.173
	교 사	4.40	0.639	
교사는 수업내용을 재미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실제 자료 (지도, 의상,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학 생	3.95	0.889	-1.201
	교 사	4.12	0.895	

*** = $p < .001$; ** = $p < .01$; * = $p < .05$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게임이나 활동)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t=-2.769, $p < .01$)이다. 또한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원어민 교사 자질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비교해 보니, 학생들은 '교사는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를 잘 이해해야 한

다'(4.50), '교사는 가르치는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4.44), '교사는 수업 내용을 적당한 목소리의 톤과 적당한 속도로 잘 전달해야 한다'(4.38) 순으로 꼽았으나,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교사는 학생들 간의 2인조 그룹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74),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것에 대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준다'(4.66), '교사는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 및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4.58) 순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들로부터 학생집단은 교사의 학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과 또렷한 전달을 더 원하고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방법론적인 면을 더 중요한 자질로 여김을 알 수 있다.

표 3은 '평가 영역'에 관한 두 집단 간의 비교를 보여 주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인다'(t=-3.399, p<.01), '교사는 학생들이 좋은 견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했을 때 칭찬을 적절히 한다'(t=-2.667, p<.01), '교사는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 수업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반복을 한다'(t=5.409, p<.001). 또한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원어민 교사 자질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교사는 성적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준다'(4.35), '교사는 시험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시험 예제를 알려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다'(4.34), '교사는 학생의 학업능력 성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격려한다'(4.27)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반면, 교사들은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인다'(4.58), '교사는 학생들이 좋은 견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했을 때 칭찬을 적절히 한다'(4.54), '교사는 성적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준다'(4.50) 순으로 응답했다. 여기서 학생집단은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해 더 민감하고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험과 평가의 준비과정에 대한 교사의 기여를 중시하는데 비해, 교사집단은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활동 자체를 더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시험과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에는 덜 민감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제시하는 것은 '학생과의 상호작용 영역'에 관한 교사와 학생 두 집단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것으로서 9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항목인 '교사는 학생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교실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t=-4.469, p<.001),

표 3
두 집단의 평가 영역에 관한 비교

항 목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값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인다.	학 생	4.15	0.825	-3.399**
	교 사	4.58	0.731	
교사는 학생들이 좋은 견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했을 때 칭찬을 적절히 한다.	학 생	4.19	0.850	-2.667**
	교 사	4.54	0.813	
교사는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 수업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반복을 한다.	학 생	4.22	0.878	5.049***
	교 사	3.28	1.246	
교사는 시험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시험 예제를 알려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다.	학 생	4.34	0.816	1.069
	교 사	4.20	0.881	
교사는 성적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학 생	4.35	0.786	-1.266
	교 사	4.50	0.763	
교사는 학생의 학업능력 성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격려한다.	학 생	4.27	0.869	-1.487
	교 사	4.46	0.676	

*** = $p < .001$; ** = $p < .01$; * = $p < .05$

‘교사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수행위를 하여야 한다’($t = -3.670$, $p < .001$), ‘교사는 교실 분위기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적절한 유머를 사용해야 한다’($t = -4.314$, $p < .001$), ‘교사는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수업규율을 엄하게 한다’($t = -8.679$,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원어민 교사 자질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은 ‘교사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4.47),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장하여야 한다’(4.43),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업시간에 학생을 시킬 때 번호를 부르기 보다는 이름을 부르므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끌게 한다’(4.32)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교사들은 ‘교사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수행위를 하여야 한다’(4.68), ‘교사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4.68), ‘교사는 교실 분위기

표 4
두 집단의 학생과의 상호작용 영역에 관한 평균차이 비교

항 목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값
교사는 학생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교실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학 생	3.89	0.946	-4.469***
	교 사	4.52	0.677	
교사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수행위를 하여야 한다.	학 생	4.35	0.787	-3.670***
	교 사	4.68	0.513	
교사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학 생	4.47	0.773	-1.842
	교 사	4.68	0.713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학 생	4.43	0.713	-0.809
	교 사	4.52	0.707	
교사는 교실 분위기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적절한 유머를 사용해야 한다.	학 생	4.09	0.902	-4.314***
	교 사	4.56	0.644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업시간에 학생을 시킬 때 번호를 부르기보다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끌게 한다.	학 생	4.32	0.812	-0.628
	교 사	4.40	0.808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말할 기회를 주어 학습동기를 유발 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한다.	학 생	4.31	0.831	-1.944
	교 사	4.56	0.760	
교사는 방과 후에 학습상담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의 질문이나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학 생	4.08	0.971	-1.735
	교 사	4.34	0.823	
교사는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수업규율을 엄하게 한다.	학 생	3.41	1.073	-8.679***
	교 사	4.50	0.735	

*** = p<.001; ** = p<.01; * = p<.05

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적절한 유머를 사용해야 한다'(4.56),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말할 기회를 주어 학습동기를 유발 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한다.'(4.56)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나 교사집단 모두가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수행하는 교사의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행동을 중요한 자질로 여긴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표 5에서 보듯이, '교사의 인성 영역'에 관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

표 5
두 집단의 교사의 인성 영역에 관한 평균차이 비교

항 목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값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나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고 다른 동료교사나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 생	4.27	0.859	-3.791***
	교 사	4.70	0.707	
교사는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위하여 동료 원어민교사들과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며 돕는다.	학 생	4.30	0.798	-0.131
	교 사	4.32	0.794	
교사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타협할 줄 알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학 생	4.29	0.846	-1.001
	교 사	4.42	0.731	
교사는 양심적이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학 생	4.15	0.929	-2.345*
	교 사	4.48	0.814	
교사는 정숙한 복장과 말쑥한 외모로 수업에 임해야 한다.	학 생	3.49	1.096	-5.830***
	교 사	4.34	0.895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학 생	4.19	0.879	-5.381***
	교 사	4.74	0.600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말씨와 태도로 대해야 한다.	학 생	4.40	0.721	-2.414*
	교 사	4.64	0.631	

*** = $p < .001$; ** = $p < .01$; * = $p < .05$

를 비교해 볼 때 5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나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고 다른 동료교사나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t=-3.791, $p < .001$), '교사는 양심적이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t=-2.345, $p < .05$), '교사는 정숙한 복장과 말쑥한 외모로 수업에 임해야 한다'(t=-5.830, $p < .001$),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t=-5.381, $p < .001$),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말씨와 태도로 대해야 한다'(t=-2.414, $p < .05$) 등의 항목들이다. 또한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원어민 교사 자질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말씨와 태도로 대해야 한다'(4.40), '교사는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위하여 동료 원어민교사들과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며 돕는다'(4.30), '교사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타협할 줄 알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4.29)의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4.74),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말씨와 태도로 대해야 한다'(4.70),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나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고 다른 동료교사나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4.6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과 표 7은 학생과 교사 두 집단에서 효율적인 영어교사 자질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평균점으로 비교해 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교사의 영어에 관한 언어적인 지식, 영어의 4가지(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술에 대한 유창한 구사력,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한 이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 조성, 외국어로서 영어 교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교사들 간의 타협할 줄 알고 융통성 있는 태도 항목의 순으로 효율적인 교사의 자질을 꼽았다.

한편, 교사들은 영어의 4가지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유창한 구사력, 학생들 간의 2인조 그룹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 가르치는 일이나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고 다른 동료교사나 학생들에게 신뢰, 수업에 대한 열정 및 적합한 교수행위,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학생들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말씨와 태도 항목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교사의 영어에 관한 언어적인 지식, 영어의 4가지(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술에 대한 유창한 구사력을 효율적인 교사의 자질로 교사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들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영어 구사능력을 갖춘 영어 교사를 성공적인 영어교육의 선행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한다.

교사들은 영어에 대한 유창한 구사력 외에 소그룹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긍정적인 태도, 학생과 교사들 간의 신뢰, 수업에 대한 열정 및 적합한 교수행위를 효율적인 교사의 자질로 중요하다고 들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인성적인 영역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교육가와 연구자들이 교사는 학습자를 격려하고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소유한 교사만이 학습자에게 위협적이고 학습동기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삼가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제고할 수 있음을 교사

표 6
두 집단에서 효율적인 영어교사 자질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평균 순위

학 생		순 위	교 사	
항 목	평균		평균	항 목
(1) 교사는 영어 발음, 문법, 어휘 등과 같은 영어에 관한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58	1	4.76	(3) 교사는 영어의 4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사는 영어의 4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4.52	2	4.74	(12) 교사는 학생들 간의 2인 조 그룹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교사는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를 잘 이해해야 한다.	4.50	3	4.74	(39)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27) 교사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4.47	4	4.70	(34)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나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고 다른 동료교사나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15) 교사는 가르치는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4.44	5	4.68	(26) 교사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수행위를 하여야 한다.
(28)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4.43	6	4.68	(27) 교사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8) 교사는 외국어로서 영어 교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4.42	7	4.66	(13)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것에 대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준다.
(36) 교사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타협할 줄 알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4.40	8	4.64	(40)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말씨와 태도로 대해야 한다.

표 7
두 집단에서 효율적인 영어교사 자질로 가장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평균 순위

학 생		순 위	교 사	
항 목	평균		평균	항 목
(33) 교사는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수업 규율을 엄하게 한다.	3.41	1	3.28	(21) 교사는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 수업을 마치고 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반복을 한다.
(38) 교사는 정숙한 복장과 말쑥한 외모로 수업에 임해야 한다.	3.49	2	3.54	(7) 교사는 보다 효율적인 교수를 위해 교실수업의 현황에 대해 알기 위해 연구(research)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교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교사는 다른 시청각적인 첨단보조자료(컴퓨터 Power Point, 비디오, 오디오, OHP, 실물 화상기 등)를 사용한다.	3.84	3	3.60	(5) 교사는 영어교육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학회, 워크샵, 세미나 등에 참가함으로써 영어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추구해야 한다.
(25) 교사는 학생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교실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89	4	3.74	(16) 교사는 다른 시청각적인 첨단보조자료(컴퓨터 Power Point, 비디오, 오디오, OHP, 실물 화상기 등)를 사용한다.
(18) 교사는 수업내용을 재미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실제 자료 (지도, 의상,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3.95	5	3.86	(2) 교사는 외국어 학습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들 자신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에서 효율적인 영어교사 자질로 가장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업규율 적용, 교사의 정숙한 복장과 말쑥한 외모, 시청각적인 첨단 보조 자료(컴퓨터 Power Point, 비디오, 오디오, OHP, 실물 화상기 등)의 사용, 학생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교실행위에 대한 이해, 수업내용을 재미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실제 자료 (지도, 의상, 사진, 그림)의 이용 항목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교사들은 수업 마치고 전 학습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반복, 보다 효율적인 교수를 위해 연구(research)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교수법 강구, 영어교육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학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가함으로써 영어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추구, 시청각적인 첨단 보조 자료(컴퓨터 Power Point, 비디오, 오디오, OHP, 실물 화상기 등)의 사용, 외국어 학습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 항목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업규율의 적용이나 교사의 정숙한 복장과 말쑥한 외모를 덜 중요한 교사의 자질로 들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수업의 분위기보다는 편안하고 덜 권위적이고 덜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교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교수를 위해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교수법을 강구하거나 시청각적인 첨단 보조 자료 사용을 교사의 효율적인 자질로써 덜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사라면 교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재를 다만 일반적인 지침으로 삼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내용을 더 풍부한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영어교육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학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가함으로써 영어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거나 외국어 학습 이론에 관한 배경지식을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교사 교육에의 필요성은 일찍이 교육가와 연구가들에 의해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오고 있다.

5. 결론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진 최근의 사회적 현실 안에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요구에 따라 의사소통 중심적 언어학습의 필요성의 대두와 대학영어 교육에 있어서 실용영어의 중점적 채택으로 인해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또 실제로 상당한 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영어교육의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정 자격을 갖춘 원어민 교수요원의 확보일 것이다. 현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많은 대학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까닭에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단기적으로 임용된 교수요원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용 후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사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부진한

실정이어서 원어민 교사 재교육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의 적극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시작된 그러한 모색의 출발점에는 국내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국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원어민 교사의 양적 팽창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영어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성애, 2000; 정길정, 민찬규, 박매란, 1999). 특히 김성애(2000)는 원어민의 유창한 언어능력이 반드시 높은 학습효과를 결과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것은 일부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일상적 언어능력과는 별도로 언어 및 언어학적 지식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을뿐더러, 국내 원어민 교사들의 다수가 외국어나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까닭에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교수 방법이나 수업지도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소 원론적인 논의로서 박기화(1996)는 자질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역할이 성공적인 영어수업을 가지고 온다고 보고, 특히 한국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사전 연수 및 수시 워크숍을 통하여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국내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나 개선을 위한 일반론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원어민 교사의 자질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학습자와 교사들 자신의 인식과 견해를 통해 규명하고자 했으며, 특히 학습자와 교사들 사이의 체계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이 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원어민 교사 50명과 학생 237명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실험집단으로부터 효율적인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5가지 영역(영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수업, 학생들의 이해도 점검 및 평가,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사의 인성)에 걸친 반응을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는 총 40개의 항목 중 21개의 항목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사의 자질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인식과 견해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대한 것일 수가 있다. 가령, '효율적인 영어교사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첫 번째 순위로 교사들은 '영어의 유창한 구사력'을 들었지만 학생들은 '영어의 언어적 지식'을 꼽았다는 점은 영어 원어민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습득한 모국어가 학습자에게는 학습의 대상인 외국어로서 접근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더욱 중요하게는 원어민 교사가 자신의 모국어를 객관적 지식의 차원에서 재이해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교수 방법과 기술에 관련된 함의를 띠는 것이기도 하다.

원어민 교사가 중요한 일부가 된 현시점의 대학 영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신이 갖추고 있는 교사적 자질, 교수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학생들이 가진 원어민 교사의 바람직한 자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들에 비추어 성찰할 것이 요청된다. 학생과 교사의 인식적 차이와 그러한 차이에 함축된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교실상황에 실천적으로 반영한다면 보다 많은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우리 교육현장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효율적인 영어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교사들의 주체적 노력과 함께 대학영어의 교육 행정적 차원에서도 본 연구가 제시하는 원어민 교사와 학생들의 견해와 인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 현장의 주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는 이 연구결과는 교사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계획하는 기관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원어민 영어교사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김덕규, 이승복. (1997). 초등영어교사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2(4), 395-424.
- 김덕기. (1987). 영어교육의 전문성. *영어교육*, 33, 143-148.
- 김성애. (2000). 새천년과 한국 영어교육의 과제. *새한영어영문학*, 42(1), 25-37.
- 김은주. (2002). EFL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영어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4(1), 71-96.
- 김충배, 신명신. (1988). *영어교육의 제 문제*. 서울: 한신문화사.
- 박경자. (1997). 영어교사의 자질과 역할. *솔피 어문논총*, 9, 459-484.
- 박기화. (1996).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을 위한 제언. *Foreign Languages Education*, 3(1), 29-42.
- 박상옥. (1980). 훌륭한 외국어교사의 자질과 교사 교육기관의 역할 및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교사 교육교과과정의 분석. *영어교육*, 30, 15-39.
- 박정숙. (1998). 영어교육 현장에서 원어민 교사의 수업 스타일과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학습스타일은 일치하는가? *Foreign Languages Education*, 5(1), 133-157.

- 배두분, 정길정, 전조영. (1991). 영어교육학에 근거한 영어교사 현직교육 모형연구. *영어교육*, 41, 3-50.
- 신용진. (1982). 유능한 영어교사의 자질. *영어교육*, 23, 169-192.
- 이계순. (1983).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개선방안. *영어교육*, 26, 1-28.
- 이길영. (2000). 영어교사 및 영어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 비교. *Foreign Languages Education*, 8(2), 101-132.
- 정길정, 민찬규, 박매란 (1999). 원어민 영어교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초중등학교 영어협동 수업현황 조사 연구. *영어교육*, 54(2), 201-227.
- 조명원. (1989). 영어과 중등교사 연수제도 연구. *영어교육*, 38, 3-23.
- 한상호. (2005). 새로운 영어교육 환경에 부응하는 영어교사의 자질. *영미어문학 연구*, 21(2), 143-154.
- Allen, T. (1987). Identifying the behaviors of the master teacher. *Spectrum*, 5(2), 42-47.
- Allwright, D. (1983). Classroom-centered research o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A brief historical overview. *TESOL Quarterly*, 17(2), 191-204.
- Allwright, D. & Bailey, K. (1983). *Focus on the language classroom: An introduction to classroom research for language teachers*. New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g, Y. J. (1999). EFL learners' risk-taking behavior. *English Teaching*, 54(4), 49-70.
- Bell, T. (2005). Behaviors and attitudes of effective foreign language teachers: Results of a questionnaire study. *Foreign Language Annals*, 38(2), 259-270.
- Bernhardt, E. & Hammadou, J. (1987). A decade of research in foreign language teacher education. *Modern Language Journal*, 71(3), 289-299.
- Biddle, B. & Ellena, W. (1964). *Contemporary research on teacher effectivenes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rophy, J. (1979). Teacher behavior and its effect.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1, 733-50.
- Brosh, H. (1996).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effective language teacher. *Foreign Language Annals*, 29(2), 125-138.
- Brown, H.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rown, H. & Altkin, M. (1988). *Effective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London, Methuen.

- Cray, E. & Currie, P. (1996). Linking adult learners with the education of L2 teachers. *TESOL Quarterly*, 30(1), 113-130.
- Jarvis, G. & Taylor, V. (1990). Reforming foreign and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In D. Birckbichler (Ed.), *New perspectives and new direction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p. 159-182).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Katz, A. (1996). Teaching style: A way to understand instruction in language classrooms. In K. Bailey & D. Nunan (Eds.), *Voices from the language classroom* (pp. 57-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dgyes, P. (2001) When the teacher as a non-native speaker.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429-442). Cambridge, MA: Newbury House Publisher.
- Michaels, S. (1985). Classroom process and the learning of text editing commands. *Quarterly Newsletter of the Laboratory of Comparative Human Cognition*, 7, 70-79.
- Murray, H. (1991).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in the college classroom. In J. C.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pp. 135-172). New York: Agathon Press.
- Numrich, C. (1996). On becoming a language teacher: Insights from daily studies. *TESOL Quarterly*, 30(1), 131-153.
- Penner, J. (1992). *Why many college teachers cannot lecture*. Illinois: Charles C. Thomas.
- Pritchard, R., Watson, M., Kelly, K. & Paquin, A. (1998). *Helping teachers teach well*. San Francisco, CA: The New Lexington Press.
- Schulz, R. (2000). Foreign language teacher development: MLJ perspectives-1916- 1999. *Modern Language Journal*, 84(4), 495-522.
- Shulman, L. (1994).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London: Routledge.
- Stevens, P. (1977). *New orientation in the teaching of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ikunoff, W. (1985). *Applying significant bilingual instructional features in the classroom*. Rosslyn, VA: Inter-America Research Associates.
- Wajnryb, R. (1992). *Classroom observation tasks: A resource book for language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J. & Lightbown, P. (1984). Asking and answering in ESL classe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0, 228-244.

방 영 주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영어과 부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02) 300-0876
yjbang@mju.ac.kr

논문접수일자: 2007.10.15
게재확정일자: 2007.12.1